

# 2021년 나눔과섬김의교회 설 예배모범

🕯 **예배초대** 설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각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 **찬 송** 430장

🕯 **기 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가족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올 한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 경** 고린도후서 4:7-18(신약 289쪽)

🕯 **설 교**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고해서 새로운 해가 뜬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편의에 따라 새롭게 한 해가 시작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해 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확실히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어린 생명 외에는 예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모양을 바꾸어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도 해보지만 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우리 자신이 해가 바뀐다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고 늙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철학자들은 허무주의나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상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겉으로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볼 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라는 연약한 그릇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적에게 사방을 포위당하는 일들,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살아감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선물의 내용물이 드러나려면 포장지가 버려져야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함으로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12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생은 이렇듯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은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복음의 능력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여 사는 것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낡아지거나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배로 삼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세상은 사라지지만,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새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우리의 기대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지만 우리는 늘 한결 같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낡아지고 사라지는 길을 향해 꾸준히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배로 삼지 말고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 **기 도**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436장

🕯 **주기도** 다같이